

고흥 동강서도 AI 발생...전남서 7번째

도축과정서 검출... 검사방식 문제 지적

올 겨울 26농가 오리 62만마리 살처분

새해 첫날인 1일 고흥군 동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 발생했다. 전남지역 농가에서만 7번째다. 특히 이 농가는 사육·출하 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가 도축 과정에서 확인됐는데, 샘플조사에 따른 검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육용오리 8300마리를 사육하는 고흥군 동강면 오리농가에서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출하한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3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농가는 지난달 28일 일제검사 때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도축장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미 농장에서 발병했지만 출하와 도축장 입고 과정에서 AI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사 방식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검사 매뉴얼에 따라 농장 1개 사육동당 20마리를 샘플 조사한다. 이 농가의 경우 8300마리를 2개동에서 사육했기 때문에 4000마리 당 20마리(0.5%)를 샘플 조사했다.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오리가 고흥 사육농장에서 나주 도축장까지 살아있는 채로 차량에 실려 이동한 탓에 이동 간 분변 낙하 등 오염원 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체운반차량 이동 과정에 대한 오염 확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차량에 포장을 씌워 분변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으로, 보호지역(500m~3km) 농가다. 방역 당국은 확진 농가와 이번에 발생한 농가 사이에 4차선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나주 도축장을 폐쇄하고,

당일 해당 농가 외에 영암군 덕진면(8400마리)과 나주시 남평읍(2만마리)에서 출하돼 도축장에 들어온 오리 3만6700마리 전량을 폐기했다.

또 해당 농가와 2km가량 떨어진 고흥 동강면 오리농가 1곳 2만5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로써 올 겨울 AI 발병으로 전남에서만 26농가 62만 9000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다.

전남 모든 가금농가와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농가에는 2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오리 사육량이 많은 데다가 최근 AI까지 발생한 나주와 영암 오리 농가 66곳에 인력을 배치해 이동통제 상황을 점검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 육용오리 농장 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이 확인된 2일 오후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진·출입로를 가축방역위생복을 입은 근무자들이 통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 개헌 지체없이 추진해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국민 신년사’서 촉구

‘지방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개헌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민형배 광주광역시청장, 이해식 서울강동구청장, 이동진 서울도봉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8명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

를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2018년은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 해”라며 “2017년이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한 해였다면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한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며 “지난 수년간 세

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 서 있다”며 “지방분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협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중앙 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개헌이 실현되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세요”

전남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고추·무·배추·인삼·대파 제외

“논에 벼 말고 다른 작물 심으세요.”

전남도는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어 벼 소득보다 낮으면 그 격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전남지역 논 1ha의 다른 작물 재배 계획 면적은 전국 5만ha의 약 21%인 1만698ha다.

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지에 10a(300평) 이상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면적 확대 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무, 배추, 인삼, 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제외된다.

1ha(300평)당 지원 금액은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콩·팥 등 두류작물 280만원 등이다. 벼외의 소득차와 영농 편의성을 감안해 작물별로 차등 지원된다.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바라는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2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쌀값이 다소 상승추세에 있으나 매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쌀 공급과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도록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中 광저우 민간단체 문화예술 교류 손잡다

광주국제문화협-광저우단체 MOU

광주 민간단체들이 중국 광저우 민간단체들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중국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등 사드 역풍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 교류’에 나섰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예술, 광주민예총 등 21개 문화 기관단체로 구성된 광주국제문화교류협의회는 2일 “광주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광저우지역 3개 기관단체와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 교류사업단은 지난달 20일 광주미술학원 미술관과 실크로드 연맹, 21일에는 광동중신국제여행사 광저우 사무소와 미술, 차 문화, 관광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저우 미술학원은 6000여명 재학생 중 인종 8대 미술대학 중 하나로 109만㎡의 부지에 2개의 캠퍼스를 가진 미술 명문이다. 광저우와 광주 작가들은 2016년 광저우미술학원 대학성 미술관에서 ‘한중 현대미술 20인 전’을 열기도 했다.

광저우 실크로드 연맹은 차 문화 중국 광저우에서 인도를 거쳐 중동까지 연결되는 무역로를 따라 동서양의 문화를 교류하는 단체로, 특히 차와 서예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광동중신국제여행사는 올해 전라도 정명천원을 맞아 경제 산업의 도시인 광저우와 광주의 관광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광저우는 인구 2500만명의 대도시이며, 광동성의 행정·경제·문화 중심지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유통 축산물 안전...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적함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가운데 인기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남 축산물 가공업체 24개소에서 생산된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을 수거해 이뤄졌다. 병원성 미생물 유무, 식품첨가물 첨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식육 및 진공포장식품, 햄 및 훈제류 등 101건을 대상으로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규정에 따라 건조필름법 등을 이용해 살모넬라, 대장균 등을 검

사했다. 이화학적 검사 방법을 이용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등 첨가물 정량 검사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체 품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영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물질 확인검사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남 축산물 및 가공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